

**\*농수산부\***

**— 대한양계협회에 종계 및 종란 수입에 따른 협조요청 —**

농수산부는 1965년도 이후 현재까지 국내종계 수요량중 많은 양을 수입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 우량종계의 개발로 이를 보급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1974년부터 수입종계중 산란계를 전량수입 중지하고 육용계만을 우량 품종으로 제한된 수량내에서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당부의 수입 추천없이 여하한 방법으로도 수입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주지시켜 달라고 대한양계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수입제한 승인품목을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별 공 고 품 목	제 한 조 치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이조에 한함)	난용종, 육용종, 겸용종에 있어서 아래것에 한함 1. 순계 (purestrain) 2. 원종 (grand parent stocks) 3. 종금 (parent stocks) 4. 실용육용추 (comercial chick for meat) 다만 수출용에 한함
조란과 난황 (생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가공을 한것에 한하여 가당한 것을 포함)	위에 표시된 가금의 종란에 한하여 실수요 자에게 농수산부 장관이 추천함.

**\*대한 양계 협회\***

**— 입란중지 결의에 따른 활동 활발전개 —**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3년 12월 29일 많은 부화업자들이 참석하여 생산 조절을 위한 양계수습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74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35일간 입란중지를 결의 했는데 업계대표들을 중심으로 각 독려반을 편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그 계몽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업자들이 이에 호응 성과가 기대된다. 대한양계협회는 업계 대표들과 계속 접촉하여 이번 결의에 따른 결실을 맺기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다.

**—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 시행 —**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월 5일 서울에서, 1월 18일 부산에서 2차에 걸친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을 시행 총3명의 해외파견 감별사와 8명의 감중 감별사를 배출 했다. 이번 새해들어 처음 실시한 감별사 시험은 1월 5일 서울 한미감별학원에서 5명이 응시 1명이 합격했으며 1월 18일 부산 한미감별학원에서 총 13명이 응시 2명의 해외감별사와 8명의 감중감별사를 배출했다. 이번 합격된 해외감별사는 아래와 같다.  
서울지구 : 여영옥(서울)  
부산지구 : 최정균(경북)  
: 정원준( " )

**— 전북지부, 전남지부 —**

**— 부화분과 위원회 조직 —**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는 새로히

부화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생산조절 및 부화 업자간의 의견을 교환 생산물의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임원은 아래와 같다. 차철원(이리 부회장), 유병환(군옥 부회장), 박인수(동양 부회장), 감사 : 유용호(남송 부회장), 정유섭(전북 부회장), 양태순(전주 부회장), 한편 전남 지부도 부화분과 위원회를 조직 그동안 모든 분과위원회의 조직을 완료 전남지방 양계업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화 분과 위원장에는 박종인(광주부회장)씨, 부위원장에는 김정유(순흥부회장)씨 총무에는 이관범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 경북지부 —**

양계협회 경북지부는 소비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입란중지에 따른 계몽을 위해 3개조로 편성 된 부화장을 순회하며 입란중지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경북도 일원을 3회 순회했다.

**— 부산 경남지부 —**

부산 경남지부는 새해를 맞아 계란협정 중량표를 제정 통과하고 중량 등급에 따른 가격을 받기로 결정했다. 중량기준은 본 월간양계 이달의 시장에 게재된 등급과 동일하다.

**— 나기현 총무부장 라희그룹으로 전임 —**

그동안 양계협회(구 가금협회)조 장기 부터 5년간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나기현 총무부장이 지난 73년 12월 31일 그동안 몸담아온 협회를 떠나 라희 그룹에서 새로이 창설하는 연암 축산 고등기

술학교 교장으로 부임 그 창설의 산파역을 담당하게 됐다. 한편 전 한국축산 농장으로 있던 전동용장장이 동교 교장으로 부임 나기현부장과 함께 연암축산 기술학교의 면모를 새롭게 그 마스터프랜을 완료, 곧 학생을 모집해서 농촌 근대화의 기수가 될 신념이 확고한 역군을 배출할 예정이라 한다.

**— 5—2회 부로일러 검정능력결과 발표 —**

대한 양계협회 지도 조사부는 지난 73년 10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 5—2회 부로일러 검정능력 결과를 발표, 본 월간 양계 2월호에 게재 했다. 총 출품 계군은 8군이었다.

**\*세이버 협회\***

한국세이버 협회(협회장: 이 필용)는 새해들어 첫 월례회를 열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서로 협력하여 양계업의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입란중지에 적극 찬성, 협력을 다짐했다. 1974년도 회장에는 현 소신 증계원 대표 이필용씨가 유임 되었다.

**\*경북 축산사료\***

합리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완전 일배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경북축산사료는 전 사료협회 기획부에서 근무하던 김진규 씨를 특채해서 업무를 보장 하였다.

**\*중앙 축산 사료\***

종합 축산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

는 중앙 축산사료(대표: 강태현)는 새해를 맞아 최상강(전대졸)씨를 기사로 특채 중앙축산 수원 공장으로 발령했다.

**\*전국 축산 진흥대회\***

**— 전국 축산인 400여명 참석 —**

국민의 식생활개선과 체위향상, 유향지의 생산 자원과 축산물의 수출 증대에 기여해온 전국 축산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산인은 국가의 원동력인 식량생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축산물 증산에 진력하며 축산물의 가격안정, 정치적 안정에 따른 경제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축산인 단합대회가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 축산 단체등이 총 참석된 가운데 개최되었는 1.8진급 조치에 따른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모로서 축산업의 발전도 아울러 기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 사료\***

대한 사료는 부로일러 공장의 본격적 가동과 함께, 1974년도 사업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 본사 및 사업장의 기구를 개편 간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본사의 연구조사실장 원용택 부장을 축산 사업장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한편, 인천공장 생산 과장 이재문씨를 본사 연구 조사실 차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부로일러 공장에 수급 판매과를 설치 전 인천공장 영업과장 이동희씨를 차장으로 승진 발령, 사료 판매과장에는 이종욱씨를 각각 발령하여 업무에 박차를 가하리라 한다.

**\*덕수 가축 약품상사\***

**— 중량교分店 중량가축약품 개설 —**

항상 양축가를 위해 친절히 봉사하는 덕수가축약품상사(대표: 차종상)는 그동안 양축가의 끊임없는 후원에 힘입어 중량가축약품을 개설 동부지역의 양축가를 위해 시내까지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보다 친절하게 양축가에 봉사 하리라 한다. 지난 1월 10일 개설한 중량가축약품에는 현 덕수가축약품상사와 같이 국내 각종 수의약품을 갖추고 우수한 수의사를 중심으로 각종 상담에 친절히 응하리라 하는데 많은 양축가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중량가축약품은 현 서울우유 맞은 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소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주소: 동대문구 상봉동 471-1  
전화: 96-3787

**\*인산 농원\***

코브 칼러 섹스를 육성, 인산사료와 함께 종합축산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인산농원은 김삼상사장을 경질 전부사장 박창수씨가 대표 이사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태평 케미칼\***

다목적 살균소독제 “하타민”을 판매 양축가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태평케미칼 주식회사(대표: 홍병규)가 2월 1일을 기하여 원효로 1가 39-10으로 이전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전화는 전과 동일하다. 영정부 직통전화 ㉠ 1716

**\*한국 동물 약품협회\***

한국 동물 약품협회(회장:김홍기)는 신년도를 맞아 사업계획(안)을 의결 협회의 일반적인 고유업무 외에 아래 사항을 중점 시책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입 관세의 감면세 추진

축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관련업종의 감면세 혜택을 동물약품 업계도 공히 받아 축산업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에 기여코저 동물약품의 수입시 관세의 감면책을 적극 추진 달성한다.

2. 업계의 정상질서 확립

가.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간의 건실한 제휴를 통한 실리성 있는 경영책으로 기업경영 자세의 쇄신을 도모하며 기업 이윤의 적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나. 동물약품의 시장 동향 및 가격형성 실태의 정기적 조사로 가격질서 문란행위의 미연 방지 및 이의 지도에 노력한다.

3.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생산 제품을 일괄수거 분석하되 종전의 사료 첨가제 위주의 경향을 지양하고 동물약품 전반에 걸쳐 대 상범위를 확대하여 명실 상부한 자율적 약사 감시 체제를 갖추므로서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4. 회원자질향상 지도제동

경영주 및 실무자에 필요한 경영 및 계몽 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당면하는 제반 업무상의 관계 상황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5. 간행물 발간 및 정보자료 수집조사.

가. 국내외적인 업계관계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 활동에 기여한다.

나. 협회 공보지를 발행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업계 동향의 신속한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대. 약사 업무편람을 단행본으로 규합 발간하여 회원의 약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

6. 회원 복리 증진

가. 회원 상호 친목과 단결의 분위기 조성 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한다.

나. 대외적으로 협회활동 상황을 널리 선전하며 회원의 참여 의식과 인식도를 높인다.

다. 회원간의 경조 재난에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7. 협회 운영체제 개선

가. 작업체의 중견실무자로 구성되는 실무 계층의 기구를 구성하며 업계의 제반 정보교환은 물론 각종 문제점을 색출하여 이의 개선책을 분석 연구케 한다.

나. 업계 외부인사로서 동물약품과 관련된 사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 기관을 두어 제반 문제를 심의케 하며 객관성 있는 자문을 받음으로서 건전한 업계 발전에 기여한다.

8. 관계 기관과의 협조 증진

주무관서의 정책수행에 협조하여 관련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강원대 연구팀 계분 사료화\***

사료 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요즈음 계분을 건조 처리하여 가축사료로 재이용 함으로서

축산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대학 축산학과 연구팀은 1차 실험에서 닭의 계분을 채취, 섭씨 60도에서 열풍 건조한 후 산란하고 있는 닭에 20%, 병아리에 5~10% 열풍 건조한 계분을 섞어 먹인 결과 무게나 일반 성장면에서 전혀 변함 없이 정상으로 자라고 있음을 밝혀 낸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험에 성공한 이 연구팀은 작년 4월부터 시작, 1차 연구 보고가 6개월 만인 10월 20일에 한국 축산학회에 발표되어 관심을 끈바있다. 20%를 섞어 먹었을 경우, 그만큼의 사료가 절약된다는 결론을 얻은 연구팀은 닭의 계분의 경우 사료 한량중 70~80만이 소화돼 분해되지 않은 양분을 다시 먹여 영양으로 흡수시킬 방법을 찾기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건조 분에서의 영양 함량은 단백질이 밀기울 보다 훨씬높은 31.02% 였고 칼슘도 5.38%나 함유돼 사료 이용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설후 24시간이내 채취한 계분의 단백질함량이 31.02% 였으나 48시간 이후 것은 16.60%, 72시간 것은 16.43%로서 배설물을 빨리 열량 건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건조분을 먹인 닭의 알도 일반사료를 먹인 닭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대신 사료\***

천안지방 양축인에게 질 좋은 완전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대신 사료(대표:곽용승)가 사세를 확장 서울 사무소를 개설 하여 양축가에 봉사할 예정이다.

주소:성동구 흥인동 27번지

전화 : 53-3724

**\*과학 사료\***

**—신발매 타이로신 산란 강화제  
다란산—**

S.F 과학사료(대표: 신 정재)는 타이로신 산란 촉진강화제 “多卵産”을 신발매 양계가에 염가로 봉사하리라 한다. 타이로신 산란촉진강화제 “다란산”은 C.R.D 예방치료제 타이로신과 10종의 비타민을 특수 처방한 산란증가 발육 촉진제라고 한다. C.R.D 예방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타이로신은 저농도로 사용시에 초생추에 활력을 주며 부로일리의 발육촉진, 산란계의 산란증가 폐지의 비유촉진등에 특유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와함께 10종의 비타민은 타이로신 효과를 배가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 AD<sub>3</sub>E를 대폭강화하여 보다 사료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녹십자 수의약품\***

로코빗, 보나에그, 코라이신등을 생산판매 하여 양축가에 봉사하고 있는 녹십자 수의약품주식회사(대표: 허정섭)는 대한신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용남씨를 특채하여 업무에 원활화를 기하기로 했다.

**\*미곡물 협회 소식\***

**1973년 세계 곡물생산 9억 3,300만톤 : 전년보다 5,400만톤 증산으로 추정**

미농무성 추계에 의하면, 1973년

은 전례없는 대풍으로 세계곡물 총생산이 9억 3,300만톤에 달하여 전년보다 5,400만톤, 1971년의 기록적 생산보다도 2,900만톤이 증산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작이 금후의 세계곡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한 주시물 요하며, 미국의 경작에 미치는 작용 또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료곡물 가격 명년 봄까지는  
계속 강세일듯—**

1968-72 사이의 세계사료곡물수요는 연평균 1,900만톤씩 증가하여 왔다.

금년은 작년보다 3천만톤이 많은 5억 8,200만톤 생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작년 흉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완전 조정할만한 수량은 못되고 있다. 그래서, 1962-71간의 옥수수 톤당 Gulf 평균가격 48~61불, 작년에는 크게 오른 85불에 비하여, 금년 수확기인 10~11월에는 무려 106불로 등기했다. 미농무성은 사료곡물의 국내와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1974년도에는 금년의 기록적인 수량 보다도 10%가 많은 2억 2천 8백만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 여부는 명년 봄 파종기의 여러사정, 특히 유류, 비료, 농약등 생산자재 공급 상황과 기후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파종상황 및 남반구의 수확상황이. 알려질 내년 봄까지는, 적어도 사료 곡물 가격이 계속 강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공곡물수입 9백만톤으로  
추정—**

1973년 중공 곡물수확은 전년도

보다 1,000만톤이 많은 기록적 생산이었는데도, 수입 수요는 작년도 630만톤 보다도 43%가 많은 900만톤 가량이 될 것이라 한다.

**\*닭고기 공판제 실시\***

성품산업주식회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개장과 더불어 2월 1일부터 닭고기 공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닭고기 유통은 주로 소매상인 이 생계를 노변이나 점포, 가정등 아무 곳에서나 손으로 마구잡아 도계를 판매하는 것이어서 유통상의 불합리성은 물론 도계처리와 판매상의 비위생적 오물처리에 의한 공해발생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닭고기 거래방법은 청소법 공해 방지법등에 단속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성품산업의 경매판매를 거래하게 되며 도매시장의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통은 거래가 금지되게 되어있다. 이러한 공판제 실시는 위생적인 닭고기를 수요자가 사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통 과정이 복잡한 곳에서 유통 과정이, 한단계 복잡해 졌다는데서 많은 문제가 될것 같다.

**—대생미생물—**

대생미생물은 경남북도의 판매 확장을 위해 직원을 보강, 김형기, 황수원씨를 각각 발령하였다.

**—한국사료 협회—**

한국사료협회는 기획부에서 일하던 김적규씨의 후임으로 한국 낙농에서 근무하던 전항기 씨를 특채했다.